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령대별 비교

최민정
(경기대학교)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의 예측요인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반대적인 관계 역시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방정식과 경제적 자본 방정식을 하나의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45~64세 연령집단에서 서로 쌍방향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65~7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일면적인 관계를 가지며, 75~8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여성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자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기노년기 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는 중년기 여성에게는 선순환적 관계를 가지며, 전기 노년기 여성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아울러 75~84세 후기노년기 여성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쌍방향 관계보다 건강상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을 위해서 연령을 고려한 접근이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용어: 중고령 여성,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 연립방정식모형, 2단계 최소제곱법

■ 투고일: 2015.1.30 ■ 수정일: 2015.3.9 ■ 게재확정일: 2015.4.1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Burniaux & Jaumotte, 2004; LaMascus et al., 2005; Moody, 2005).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에만 그치는 현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특히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개인과 가구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고령층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령층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보건의료지출, 교육투자 등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건강상의 불평등과 세대 간 불평등의 이전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지닌다. 이처럼 고령화는 모든 세대 및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대비를 필요로 하며, 더욱이 중고령 가구의 경우 생애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령자 대부분이 충분히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채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고 노년기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니계수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불평등도는 가처분소득 기준 0.310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순위에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지니계수는 0.409로 멕시코, 칠레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국민연금연구원, 2012). 특히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별 및 이혼 등에 의해 여성 가구주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추이에도 점차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관련 특성들이 점차 다양화되고 이질화되면서 여성 집단 내 소득분포와 원인이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했다(Smith, 1991; Dex, Joshi & Macran, 1996; 김혜연, 2009 재인용). 이 연구들에서 강조되었듯이, 여성집단 내의 이질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사회적, 정책적 함의는 다양하다. 따라서 중고령자들이 성(gender)과 연령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이질적인 집단일 뿐 아니라 이러한 특성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997년 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연결망에서 비롯되는 자본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후 사회적 자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인 및 집단행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개념으로 사회학분야에서 통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지위획득,

사회이동, 정치참여는 물론 심리사회적 및 신체적 안녕에 이르는 사회과학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Burt, 2000; Lin, 2001). 특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물질 자본이나 인적자본과는 구분되면서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하나의 대안자본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점차 신뢰나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사회정책의 성과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서지원, 2013).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속성은 노년기 경제적 복지 논의에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노년기의 사회적 연결망은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 노력, 금전적 자원 등 심리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안정감을 획득하는데 기여하는 자원으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남성과 다르게 형성되고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면, 사회적 자본의 결과 역시 다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 불평등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을 Lin(2000)은 자본 결손과 보상 결손의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사회적 자본 소유의 불평등은 다양한 투자 또는 기회의 차이를 유발하여 상대적 자본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주어진 자본의 질 또는 양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평등한 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남성의 사회적 자본과 다른 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밝혀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연령 층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각각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이들의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우리사회의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여 사회적 자본이 지닌 경제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연령과 사회적 자본

Putnam(2000)은 세대, 교육 등에 의해 달라지는 개인의 경험이나 소득,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개인적 속성들이 사회적 자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과 연령(세대)을 들었다. 일반적으로 중년기 이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과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교적 초기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이기홍(2005)은 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박희봉과 이희창(2006)은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를, 서지원(2006)은 사회적 자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노인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논의의 외연을 확장하여 개인수준과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자본이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을 사회참여로 간주하고 취업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으로 설명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이홍직(2009)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호혜성의 규범, 신뢰, 사회적 참여가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적 참여가 노년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고, 특히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적 자본과 노년기 건강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Cagney & Wen, 2007)에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 김범중과 이홍직(2011)은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노인을 비교하면서 정보공유와 신뢰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 노년기 사회적 자본을 분석할 때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신뢰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대상을 미시, 중시, 거시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김태준 외(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높으나 정치나 법,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낮아 한국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밝혔다. 그 밖에 노인의 자원봉사참여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이현기, 2010),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와 여가활동,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신창식·최수일, 2010; 장유미, 2011), 연령대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정순돌·성민현, 2012), 사회적 자본이 노년기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 연구(강소랑·문상호, 2012), 중년기와 노년기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서지원, 2013) 등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 인식과 사회적 자본 형성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김지훈 외, 2013)도 수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년기 삶을 영위하는데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노년기 진입을 앞둔 중고령자들에게도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동일한 생애주기 내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의 수준과 경제적 자본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서지원, 2013), 노년기 내부 집단에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허성호·김중대, 2011).

2. 여성과 사회적 자본

지금까지 여성의 사회적 자본에 주목한 연구들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형성과 관련하여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거나(Coleman, 1988, 1990; Brynin & Schupp, 2000; Lin, 2000), 여성이 차지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노동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 구분된다(Burt, 1993; 박기남, 2002; 장덕진·황정미, 2003). 그 중 Lin(2000)은 사회계층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거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있어서 불리한 자원을 지니고 있는 특정한 성 및 인종집단은 그들의 경력으로 인해 열등한 지위에 속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성별 사회적 네트워크와 배태된 자원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가족 간 연결망 구축에 있어 남성과 여성은 한 가족으로서 동일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네트워크 방식은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결국 성별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사회구조적 위치 차이를 야기하고, 이러한 위치 차이가 사회적 연계망 수준의 차이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성은 가족 및 친척과의 관계에 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보다 직장 동료에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Marsden, 1987)도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여성이 도구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가족 및 친척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남성은 직업을 획득하고 경력을 증진하기에 유용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Dominguez와 Watkins(2003) 역시 남성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족과 친구들이 불리한 경우 상향적 사회이동을 위해 다른 네트워크를 보다 활발하게 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사회적 자본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한국 여성의 교육 및 생활여건은 개선되었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들이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고위직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장덕진·황정미, 2003:133). 이들은 여성의 인적자본은 낮은 지위의 관리직에 접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적은 여성은 고위직으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Menjivar(2000)는 살바도르 이민자를 대상으로 남성이 대부분 구직이나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음을 밝혔다. Renzulli 외(2000)는 여성의 네트워크는 친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여성의 네트워크 구조가 남성에 비해 동질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Metz와 Tharenou(2001)등은 여성이 높은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Adler & Izraeli, 1994; Ibarra & Smith, 1997). McPherson과 Smith(1982)는 직업에서의 지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여부를 통제하더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규모가 큰 조직에 속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Lin(2000) 역시 남성이 보다 규모가 큰 네트워크를 갖게 된 것은 계층구조에서 높은 지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의 18개 도시에 대한 연구에서 중국 여성이 남성과 비교할 때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직업을 획득하고, 직장에서 상위직으로 승진하며, 기업에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성과 남성의 네트워크 수준의 차이가 다양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며 (Popielarz, 1999), 남성은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직업 내의 위치, 자영업 소유 비율, 근로 소득 등이 높다는 점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을 유지 및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skin, 1993). 이러한 성향에 따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으며, 상이한 사회적 자본이 결국 경제적 자본에서의 격차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관계

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경제적 자본의 영향력

저소득계층이 가난에서부터 탈피하고 긍정적인 힘을 통해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Brisson & Usher, 2005). 지역사회 내에서 협력, 참여 등의 사회적 자본의 접근은 저소득계층에게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긍정적 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Mancini & Marek, 2004).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사회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다고 주장한다(Coleman, 1988; Portes, 1998; Bourdieu, 1984; Lin, 2000; 김용학, 2004).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자본이 물질적 이익을 낳는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관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때문에 국내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경제적 성과 등을 분석한 바 있다(김왕배·이경용, 2002; 박기남, 2002; 김성훈, 2005). 이들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결과는 소득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개인의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 즉 사회적 자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2000년 이후 국제기구로부터 나타난 개념으로 빈곤퇴치 수단의 일환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임경수·소진광, 2005)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취업 이후의 직장에서의 승진과 성공에도 영향을 미친다. Ferri 외(2009)는 승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이 자신의 경력 발전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동일 직종 내 인적 연결망의 부족과 자신을 지지해주는 집단의 부재를 꼽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의 불균등한 분포는 구직기회에서의 불평등과 승진기회에서의 제한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경제적 격차를 확대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궁핍한 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Brisson과 Usher(200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나 신뢰 등의 중심적인 요소는 사람들이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고 사회적 관계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소득 계층에게는 투자할 자본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의

활용력이 약하고, 빈약한 상호간의 조직구조와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수입에 빈부격차가 있는 경우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 수준에 차이가 나고, 특히 저소득 계층은 사회응집력의 수준이 낮음이 보고되고 있다(Kawachi et al., 1997; Locher et al., 2005). 즉, 소득의 불균형은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utnam, 1993). 이에 이현주 등(2013)은 가난은 사회적 자본의 범위나 양을 축소시키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재원의 축적을 방해하게 되므로 계속되는 빈곤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취업에 있어 다양한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신경아, 1999),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고 구직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회적 자본의 불균등한 분포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 자본이 계층 양극화를 야기하고 재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제가 되는지를 설명해준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승진기회 및 승진에 따른 임금상승기회에도 사회적 자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불균등한 분포가 다시 임금 격차라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 자본의 시각에 기초해서 빈곤과 경제적 복지감, 경제적 자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오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위에서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면서 그 반대적 영향력, 즉 경제적 자본 수준이 사회적 자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은 다소 등한시 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쌍방향 관계에 대한 검증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분석방법의 선택과 함께 이러한 관계에 대한 검증을 다양한 인구집단 및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나. 경제적 자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

Lin(2001)은 효율적인 사회적 연결망의 구축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의 효과로 직업지위의 획득, 가구 및 개인 소득의 증가 등을 제시한다. 즉, 개인의 사회자본이 풍부할 수록 보다 높은 직업지위, 빠른 승진, 높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에게 집합적으로 소유된 자본이라는 후원을 제공해주고, 그 구성원이 신용을 보증해주는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자원은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사회적 자본이 물질 자본과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전유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자산, 소득, 주거, 교육, 기술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능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 관계구조와 구조 안에 편입된 행위자들의 유용한 속성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조 안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유용한 속성을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사회적 자본은 이처럼 사람들 사이의 연결망에 내재된 또 다른 생산요소라고 볼 수 있다. Putnam(1995)은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가교적 사회적 자본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빈곤층을 그 사회의 주류적인 자원이나 서비스에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빈곤을 화폐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을 적게 소유한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면, 다른 생산요소인 사회적 자본의 결여나 부족 또한 빈곤의 한 측면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홍경준, 2001).

소득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그렇게 다양한 편이 아닌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외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과 소득수준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은 소득과 소비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Montgomery, 1991; Burt, 1997; Narayan & Pritchett, 1997). 이 중 Narayan과 Pritchett(1997)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양이 한 단위 증가하면, 지역 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교육과 재산을 통제하더라도 약 20~30% 가량 증가한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Grootaert 외(2003)는 빈곤한 지역의 경우 대체로 외부와의 연결성이 취약하고, 자원과 정보의 동원이 현저히 결핍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ampbell 외(1986)는 효과적인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은 직업위세, 가구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경제적 지위획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Boxmann 외(1991)는 교육수준 및 사회자본이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국내 연구로 홍경준(2001)은 사회적 자본의 결여나 부족이 빈곤의 한 측면으로 기능한다고

보고 사회적 자본과 빈곤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는 인적자본 변수 같은 것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빈곤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의 필요성과 빈곤의 외연을 확장할 것을 조망하였다. 비슷한 연구로서 임우석(2009)은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별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소득은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참여와 공식적 네트워크의 수준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을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였다. 서지원(2008) 역시 중년기 사회자본과 경제적 복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비공식적 연계망과 공식적 관계망이 있을수록 경제적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이며,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 기제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Bourdieu, 1986; Montgomery, 1991; Putnam, 1995; Burt, 1997; Narayan & Pritchett, 1997; Lin, 2001). 또한 반대로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Brisson & Usher, 2005; Ferri et al., 2009). 이에 대한 논의와 검증은 사회적 자본의 결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제한적인 시각일 수 있다. 즉,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에 대한 전체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한 방향에서만 진행되는 영향력만을 고려한 것이며, 그 반대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여지를 갖는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고 증가시키는 주요 기제라는 사실 외에 그 반대적인 관계로서 경제적 자본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쌍방향 관계를 배제하고서는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각각이 원인이자 결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적 논의를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을 연령대별로 구분하고,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간의 쌍방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7차년도(2012년) 자료를 분석 자료로 이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들의 규모와 상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에 7,07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8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은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다양한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조사 자료로서 본 연구의 관심사인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적합성을 지닌다. 그러나 표본 추출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과대 표집 되었으므로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7차년도 표준 가중치(개인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한국복지패널은 8차년도(2013)자료이지만 주요 사회적 자본 문항이 포함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의 일부 문항이 3년 주기로 설문하도록 설정되면서, 8차년도 자료에는 이러한 문항들이 없어 7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은 가구단위와 가구원단위의 자료가 통합된 원시자료를 이용하였고,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분석에 투입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45세~84세 이하¹⁾ 중고령 여성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중고령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인 영향관계가 추정되어 어느 한 변수는 독자적으로 내생(종속)변수 혹은 외생(독립)변수로만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차항이 회귀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하는 OLS(Ordinary

¹⁾ 중년여성과 고령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대에 따라 전기 중년기 45~54세, 후기 중년기 55~64세, 전기 노년기 65~74세, 후기 노년기 75~84세로 구분하였다. 이는 서지원(2013)의 연령구분을 참고한 것이다.

Least Squares)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변수간의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2단계 최소제곱법(two-stage least squares method: 2SLS)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일방정식모형에서 최소제곱법(OLS)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내생 변수(Y)와 외생변수(X)간에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변수들간에 상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인과관계를 갖는 변수들이 내생변수로 표시되는 여러 개의 방정식들로 이루어지는 모형을 이용해야 한다. 즉, 회귀모형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반응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해 두 모형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수의 방정식 형태로 구성된 모형을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이라고 하고, 이들의 동시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이 사용된다(서혜선 외,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간의 관계를 일방적 관계에서 검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쌍방향 관계임을 가정하고 분석한다.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에 대한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두 반응변수간의 일방적인 관계(unilateral relationship)를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OLS 추정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일방정식 분석모형에서는 설명변수인 사회적 자본(X)과 반응변수인 경제적 자본(Y)과의 인과관계를 X가 Y의 변동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거나 역으로 설명변수인 경제적 자본(X)이 반응변수인 사회적 자본(Y)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향관계로 간주하여 분석해왔다. 하지만 사실상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인과관계로만 이루어져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예측하고자 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모형 내부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적으로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수준은 각 변수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이영성(2004)은 동시적 관계(simultaneous relationship) 또는 상호의존적 관계(interdependence)라고 설명하면서 사회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변수간에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방적 관계로 한정된 분석은 단순한 일면적인 설명방식에 국한되어 변수간에 인과적 관계(casuality)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델의 부정확성의 문제를 지닌다는 한계를 갖는다(강철희,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간의 관계가 상호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통해서 결정되며, 어떠한 균형관계(equilibrium relationship)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값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고 이러한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쌍방향 관계를 연립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구조방정식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는 연립방정식을 추정함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내생성 문제란, 종속변수가 서로에 대해서 독립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서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가 일방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일차방정식 모형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회귀방정식에 OLS 추정법을 사용할 때 방정식의 오차항과 설명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하지만 종속변수가 각 방정식에서 독립변수로 역할을 하게 되면 오차항과 종속변수가 독립적이라는 회귀분석의 가정이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추정량의 불편성과 일관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문지은, 2009). 이로 인해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은 편의가(bias) 발생하게 된다²⁾. 이러한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립방정식에 적용하는 추정법의 일종인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간의 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은 도구변수를 연립방정식 전체에 있는 독립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도구변수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임진섭, 2009). 따라서 도구변수를 어떠한 변수로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선정한 도구변수들이 적절한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첫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를 전체에 있는 독립변수에 회귀시키고 그의 추정값(fitted value)을 다시 원래 식에 대입시켜 두 번째 단계에서 다시 한번 회귀식을 추정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강철희, 2007).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2SLS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²⁾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연립방정식의 편의, 측정오차의 편의, 누락변수의 편의 때문이다(민인식·최필선, 2009).

$$(1) \text{ 사회적 자본} = \beta_1 + \beta_2 \text{경제적 자본} + \beta_3 \text{학력} + \beta_4 \text{고용 형태} + \beta_5 \text{가구주여부} + \\ \beta_6 \text{근로가구원 수} + \beta_7 \text{거주지역} + \beta_8 \text{건강상태} + \epsilon_i$$

$$(2) \text{ 경제적 자본} = \beta_9 + \beta_{10} \text{사회적 자본} + \beta_{11} \text{학력} + \beta_{12} \text{고용 형태} + \beta_{13} \text{가구주여부} + \\ \beta_{14} \text{근로가구원 수} + \beta_{15} \text{거주지역} + \beta_{16} \text{건강상태} + \epsilon_i$$

우선, 식(1)의 경우 1단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종속변수인 경제적 자본을 연립방정식에 있는 전체 독립변수를 도구변수(Z2)로 투입하여 식(3) 다음과 같이 사회적 자본의 추정치인 경제적 자본을 구한다.

$$(3) \text{ 경제적 자본} = \beta_{17} + \beta_{18Z2} + \epsilon_i$$

$$(4) \text{ 경제적 자본} = \widehat{\beta}_{17} + \widehat{\beta}_{18Z2} + \epsilon_i$$

2단계에서는 다른 변수들은 그대로 두고 기존의 (1)번식의 경제적 자본을 식(4)와 같이 도구변수로 추정된 경제적 자본으로 대체한 뒤 이를 OLS로 추정하는 것이다(식5).

$$(5) \text{ 사회적 자본} = \beta_1 + \beta_2 \widehat{\text{경제적 자본}} + \beta_3 \text{학력} + \beta_4 \text{고용 형태} + \beta_5 \text{가구주여부} + \\ \beta_6 \text{근로가구원 수} + \beta_7 \text{거주지역} + \beta_8 \text{건강상태} + \epsilon_i$$

마찬가지로 식(2)의 사회적 자본 역시 동일한 방법을 통해 추정한다.

$$(6) \text{ 사회적 자본} = \beta_{21} + \beta_{22Z2} + \epsilon_i$$

$$(7) \text{ 사회적 자본} = \widehat{\beta}_{21} + \widehat{\beta}_{22Z2} + \epsilon_i$$

$$(8) \text{ 경제적 자본} = \beta_9 + \beta_{10} \widehat{\text{사회적 자본}} + \beta_{11} \text{학력} + \beta_{12} \text{고용 형태} + \beta_{13} \text{가구주여부} + \\ \beta_{14} \text{근로가구원 수} + \beta_{15} \text{거주지역} + \beta_{16} \text{건강상태} + \epsilon_i$$

이에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실제로 내생적인 관계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Hausman-F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두 방정식 내에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두 변수가 서로 내생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³⁾. 식(1)과 식(2)에서는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모형 내부에서 그 정도가 결정되므로 내생변수가 되며, 이에 대한 설명변수들을 외생변수가 되었다. 즉, 식(1)인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추정식의 외생변수는 경제적 자본을 포함한 학력, 고용형태, 가구주여부, 개인소득, 근로가구원 수, 거주지역, 건강상태가 포함되었으며, 식(2)인 경제적 자본에 대한 추정식의 외생변수로는 사회적 자본과 학력, 고용형태, 가구주여부, 근로가구원 수, 거주지역, 건강상태가 포함되었다. 위 방정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때문에 식(1)의 반응변수인 사회적 자본이 식(2)의 방정식에서는 설명변수로 되어 있고, 식(2)의 반응변수인 경제적 자본은 식(1)에서는 설명변수로 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상호인과관계 속성을 지닌 양방향적인 관계라면, 두 회귀모형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두 반응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두 모형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다수의 회귀모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각 모형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변수들의 관련성을 고려한 모형을 통한 결론이나 예측이 현실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서혜선 외, 2008).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OLS 모형의 추정방식 보다는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립 방정식 모형의 일종인 2SLS 분석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3) Hausman-F검정의 귀무가설은 각 방정식의 해당 설명변수 x 와 오차항의 공분산이 0이어서 x 가 외생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립가설은 공분산이 0이 아니므로 x 가 내생적이라는 것이다. 분석결과, 경제적 자본 방정식의 검정통계량은 χ^2 가 3.34($p=0.023$), 사회적 자본 방정식의 검정통계량은 χ^2 가 1.93($p=0.002$)으로 나타나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두 방정식에서 모두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내생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3. 변수 및 변수의 측정

가. 사회적 자본

(1) 측정 지표의 설정

사회자본이란 네트워크, 신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Putnam의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요소인 신뢰는 공동체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기회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Putnam, 2000). 사회자본은 기존의 인적자본이 개인적 차원에 그친 것에 비해 네트워크 등 좀 더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World Bank, 2002).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위한 연구는 90년대부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 OECD와 영국 통계청(ONS)의 사회자본 컨퍼런스에서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회자본 측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영국통계청을 비롯하여 EU 등 국가 차원에서는 신뢰, 상호배려, 참여 등의 관점에서 발굴된 측정 지표를 통해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기본요소를 네트워크, 신뢰, 시민참여, 호혜성 등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네트워크(사회 참여)와 신뢰를 주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김기홍, 2006; 홍영란 외, 2009).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취업활동과 자원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를 비롯한 지인에 대한 비공식적 지원활동, 그리고 학습활동과 종교 활동, 사회단체 참여활동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박희봉·이희창, 2005; 이기홍, 2005; 김주현, 2009; 임우석, 2009; 신창식·최수일, 2010), 신뢰와 관련해서는 김태준 외(2009)가 사회적 자본의 대상을 미시, 중시, 거시 수준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 바 있다. 또한 장유미(2011)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 수준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 밖에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해서는 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수나 가족이나 친척, 이웃과의 접촉 빈도, 경제적, 지지적 교환관계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있다(임우석, 2009; 문정란, 2010; 신상식·최수일, 2010; 서문기·오주현, 2010; 손용진, 2010; 우경숙 외, 2012; 서지원, 2013). 이 밖에 국외의 연구기관 및 통계국에서는 사회자본을 보다 세분화하여 사적사회자본과 공적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사적사회자본은 다소 미시적인 차원인 사적 신뢰, 배려, 사적 참여로 구성되고, 공적사회자본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치활동을 비롯한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과의 공적인 교류 등으로 구성된다(장후석·고승연, 2014).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적 자본을 '신뢰, 참여, 배려를 통해 사적 공동체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하고, OECD, ISSP 등에서 사용하는 설문 문항과 양적 지표를 통해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 중 사회적 자본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하위지표를 구성하였다⁴⁾.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에게 도움 줄 의향, 자원봉사·기부활동경험, 종교, 가족관계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타인에 대한 부정적 경험으로 구성하였다(Lee et al., 2004; Perry, 2008; Bakeera et al., 2010; 우경숙 외, 2012; 김지훈 외, 2013).

(2) 측정 방법

이상에서 구성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각 구성요소별 지수를 표준화한 후⁵⁾ 1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지수화 하였으며, 이에 사회적 자본 지수는 7개 항목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의 척도를 표준화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S = \frac{V - m}{M - 1} \quad V: \text{변수값}, M: \text{최대값}, m: \text{최소값}$$

각 사회적 자본 변수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하여 0과 1사이의 수치를 얻을 수 있도록 위의 공식과 같이 표준화시킨다. 예컨대, 있다/없다의 경우와 같이 이항변수인 경우 결핍 시에는 1의 값을 갖게 되고, 비결핍 시에는 0의 값을 갖는다. 또한 이항변수가 아닌 등급이 있는 변수의 경우, $m = 1$ 이 가장 결핍 또는 불만족에 해당되고 $m = M$ 인 경우에는 비결핍 또는 만족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5점 척도인 경우 가장 불만족에서 가장 만족 순으로 배열되면 사회적 자본의 표준화된 점수는 $1 > 0.75 > 0.5 > 0.25 > 0$ 의

⁴⁾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구분과 이에 따른 측정지표의 선정은 OECD와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한계로 OECD와 ISSP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성요소의 속성과 대표 지표들이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⁵⁾ 즉, 각 지표가 모두 동일한 척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표준화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작업은 연구자의 주관성 또는 자의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측정수준이 상이한 여러 변수들의 측정수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값을 갖는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0점은 조작적 정의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7점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 경제적 자본

본 연구에서 중고령 여성의 소득은 중고령 여성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총소득은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상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개인의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앞서 산출한 가구소득을 균등화지수(equivalent scale)로 조정하였다. 균등화지수는 가구 구성원들이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계비용의 감소를 추정하는 비율로써, 가구의 규모에 따라 가구의 욕구가 달라지므로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의 욕구를 동등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가구 균등화지수를 사용함으로써 가구 내에서 소득이 가구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가정되며, 이를 통해 가구 내에서 각 개인이 가지는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Y 는 가구당 소득이며, S 는 가구원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모 탄력성 0.5의 값을 이용하였다(박찬용 외, 2002).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W_{0.5} = Y/\sqrt{S}$$

다. 독립변수

각 방정식의 구체적인 외생변수를 살펴보면, 학력, 가구원 수, 배우자 유무, 고용형태, 가구주여부, 근로가구원 수, 거주지역, 건강상태 등을 설정하였다. 연령은 네 집단(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으로 나누어 각각의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구성 및 측정방법

변수	지표	측정 방법	척도	설명
종속변수				
경제적 자본	1인당 가구소득	$\log(\text{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균등화지수 적용)
사회적 자본 (0~7)	신뢰	1=있다, 0=없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음
	타인에게 도움 줄 의향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5	위급한 사람을 도와줄 용의
	자원봉사·기부활동 여부	1=있다, 0=없다	2	자원봉사, 기부경험 있음
	종교	1=있다, 0=없다	2	종교 있음
	가족관계만족도	1=매우 불만족~5=매우만족	5	
	사회친분관계만족도	1=매우 불만족~5=매우만족	5	
	타인에 대한 부정적 경험	1=대부분 그랬다~4=극히 드물다	4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독립변수				
가구원 수		가구원 수		
배우자 유무		1=유배우, 2=무배우	2	
교육연수		무학=0, 초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대학원졸=18		
종사상 지위		0=무직, 1=상용직, 2=임시/일용/자활, 3=고용주, 4=자영, 5=무급가족		
가구주여부		1=가구주, 2=비가구주	2	
근로가구원 수		가구 내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원 수		
거주지역		0=서울, 1=광역시, 2=농촌	3	
건강상태 만족도		1=매우 불만족~5=매우만족	5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경험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다.

IV. 분석결과

1. 연령대별 사회적 자본 수준 차이 분석

연령층별 사회적 자본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분산 분석, 사후검정의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도움의향의 경우 45~54세 집단이 가장 높고, 75~84세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사후검증결과 연령이 가장 높은 75~84세 집단의 타인에 대한 도움 의향 정도가 45~54세, 55~64세, 65~74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만족도의 경우도 연령이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역시 75~84세 연령집단은 45~54세, 55~64세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65~74세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여성노인간에 가족관계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 진입할수록 가족 간에 정서적·도구적 관계망이 약화되며, 사적 지원망이 감소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타인을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어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협소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망 확립을 위해 노인가족들에게 가족상담 및 가족생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 연령대별 사회적 자본 하위 항목별 평균 차이

항목	연령	M(SD)	F	Scheffe
타인 도움의향	45~54세(a)	0.701(0.166)	113.956***	d<a, b, c
	55~64세(b)	0.673(0.191)		
	65~74세(c)	0.589(0.231)		
	75~84세(d)	0.523(0.249)		
가족관계만족도	45~54세(a)	0.720(0.157)	13.160***	d<a, b
	55~64세(b)	0.718(0.167)		
	65~74세(c)	0.691(0.172)		
	75~84세(d)	0.670(0.183)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45~54세(a)	0.687(0.151)	15.462***	d<a, b, c
	55~64세(b)	0.679(0.161)		
	65~74세(c)	0.666(0.165)		
	75~84세(d)	0.628(0.173)		
타인에 대한 부정적 경험	45~54세(a)	0.741(0.050)	4.622**	d<a, b
	55~64세(b)	0.742(0.054)		
	65~74세(c)	0.738(0.063)		
	75~84세(d)	0.731(0.059)		

*** $p < .001$. ** $p < .01$. * $p < .05$.

다음으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족관계만족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역시 연령이 적을수록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또한 높았으며, 75~84세 집단은 평균 0.628점으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사후검증결과를 보면 75~84세 집단의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는 노년기에 진입할수록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모두로부터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타인에 대한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 집단에서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경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짐작하건데,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집단의 경우 타인과의 접촉 기회가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많고, 많은 접촉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 또한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령집단에 따른 신뢰, 자원봉사·기부경험, 종교유무를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45~54세 집단에서 타인을 신뢰하는 비율이 19.9%로 신뢰할만하다고 응답한 연령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55~64세 집단이 14.4%, 65~74세 8.9%, 75~84세 집단이 5.8%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인을 신뢰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여성 전체의 경우 타인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0%,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1.0%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다소 많아 절반 이상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 및 기부경험 역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중고령 여성 가운데 자원봉사 및 기부경험이 있는 비율은 11.1%에 불과해 자원봉사·기부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중고령 여성 전체를 보면 종교가 있는 비율이 64.2%로 절반 이상이 종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5~54세 연령집단의 경우 24.1%, 55~64세 집단은 18.4%, 75~84세 집단은 7.8%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교가 있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활동 및 종교 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참여활동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연령대별 사회적 자본 하위 항목별 차이

항목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전체	χ^2
신뢰	유	694(19.9)	504(14.4)	309(8.9)	202(5.8)	1709(49.0)	10.796*
	무	669(19.2)	514(14.7)	400(11.5)	198(5.7)	1781(51.0)	
자원봉사·기부	유	234(6.4)	139(3.8)	31(0.8)	4(0.1)	408(11.1)	120.803***
	무	1226(33.3)	921(25.0)	709(19.2)	421(11.4)	3277(88.9)	
종교	유	898(24.1)	687(18.4)	521(14.0)	290(7.8)	2396(64.2)	13.686**
	무	566(15.2)	385(10.3)	232(6.2)	153(4.1)	1336(35.8)	

*** $p < .001$. ** $p < .01$. * $p < .05$.

다음으로 연령대별 경제적 자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인당 가구소득은 45~54세 집단이 평균 5.64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으며, 75~84세 집단은 4.77로 가장 적다. 사후검증결과 75~84세 여성의 소득이 45~54세, 55~64세, 65~74세 집단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 45~54세 집단이 평균 4.12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으며, 75~84세 집단은 3.51로 나머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며, 경제적 자본 또한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여성일수록 개인이 갖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감소로 인해 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노년기 진입을 앞둔 예비노인이나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중년여성들이 노년기가 되면서 급격히 감소할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4. 연령대별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차이

변수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F	Scheffe
log 개인소득	5.64(1.13)	5.43(1.01)	5.33(0.96)	4.77(0.84)	153.918***	d< a, b, c
사회적 자본	4.12(1.17)	3.98(1.11)	3.73(1.08)	3.51(1.18)	27.493***	d< a, b, c

*** $p < .001$. ** $p < .01$. * $p < .05$.

2.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표 5>는 중고령 여성의 연령대별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쌍방향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는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두 가지이다. 또한, 설명변수는 가구원 수, 배우자 유무, 학력, 고용형태, 가구주여부, 근로가구원 수, 거주지역, 건강상태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우선, 45~54세 연령집단의 경우 종속변수를 경제적 자본으로 한 OLS 추정 결과에서 사회적 자본의 계수는 0.063이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본 또한 증가하게 됨을 뜻한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형태가 상용직일수록, 고용주일수록, 자영업자일수록 경제적 자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농촌에 거주할수록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경제적 자본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OLS 추정결과는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 자본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인과관계 모형에서 예상하는 결과에 부합한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중고령 여성의 경우 경제적 자본이 풍부하여 사회적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 변수를 외생적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양면적(bilateral)이고 상호적인 관계에 있음을 가정하여 2SLS 추정을 시행하였다. 2SLS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OLS와 2SLS의 결과는 거의 유사하지만, 몇몇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2SLS를 이용한 연립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자본에 대한 방정식의 경우 모형의 F값은 144.728이었으며, 사회적 자본 모형의 경우 F값은 21.642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경제적 자본에 대한 설명변수의 설명력은 32.8%,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변수의 설명력은 29.0%였으며, 경제적 자본 모형의 경우 OLS 분석결과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회적 자본 모형에서는 OLS 분석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립방정식모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각 방정식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양면적이면서 동시에 상호균형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립되는 쌍방향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방정식에서 두 변수간의 관계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본 수준 역시 높아지며, 경제적 자본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이로 인해 사회적 자본 수준 역시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적 자본 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는 가구원 수, 학력, 고용형태, 가구주 여부, 근로가구원 수였으며, OLS 분석결과에서 유의하였던 배우자유무는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일수록, 가구주일수록, 근로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는 학력, 고용형태, 근로가구원 수, 거주지역,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령대별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2SLS)을 통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관계 분석

내생 변수	구분	45~54세				55~64세				
		OLS		2SLS		OLS		2SLS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경 제 적 자 본	내생	사회적 자본	0.063***	0.011	0.697***	0.161	0.136***	0.013	0.204*	0.013
		외생	가구원 수	0.578***	0.020	0.568***	0.086	0.797***	0.024	0.803***
	변수	배우자(ref.유)	-0.341***	0.072	-0.374	0.324	-0.176**	0.056	0.177**	0.573
		학력	0.022***	0.004	0.041**	0.105	0.032***	0.004	0.033***	0.004
		고용형태(ref.무직)	0.121**	0.036	0.339*	0.026	-0.007	0.053	-0.007	0.053
		상용직								
		임시/일용/자활	-0.019	0.028	-0.047	0.050	-0.110**	0.033	0.091	0.034
		고용주	0.283***	0.081	0.260	0.492	0.333*	0.135	0.324*	0.160
		자영자	0.097*	0.040	0.122	0.024	0.065*	0.045	-0.113	0.462
		무급가족	0.039	0.041	0.138	0.105	-0.005	0.045	0.002	0.486
		가구주(ref.해당)	-0.227**	0.073	-0.277***	0.113	-0.512***	0.058	0.514**	0.596
		근로가구원 수	0.065***	0.012	0.612***	0.153	0.122***	0.016	0.120***	0.016
		지역(ref.서울)	-0.012	0.027	-0.538	0.539	-0.070*	0.031	0.057	0.054
		광역시								
		농촌	-0.100*	0.046	-0.216	0.204	-0.130**	0.048	0.062	0.029
		건강상태	0.042**	0.014	-0.033	0.039	0.039*	0.015	0.514*	0.060
		Constant	2.368***	0.181	4.963***	0.387	1.050***	0.188	0.039**	0.015
		F	161.987***		144.728***		211.780***		107.409***	
		Adjust R ²	0.647		0.328		0.464		0.352	

내생 변수	구분	45~54세				55~64세				
		OLS		2SLS		OLS		2SLS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사 회 적 자 본	내생	경제적 자본	0.349***	0.062	0.366***	0.063	0.188**	0.074	0.157**	0.076
		외생	가구원 수	0.006	0.059	-0.004	0.059	0.030	0.082	0.020
	변수	배우자(ref.유)	-0.115	0.171	0.087	0.173	-0.358**	0.134	0.460**	0.136
		학력	0.082***	0.009	0.054***	0.043	0.054***	0.009	0.058***	0.009
		고용형태(ref.무직)	0.134*	0.084	-0.116*	0.084	0.081	0.125	-0.088	0.126
		상용직								
		임시/일용/자활	0.066	0.065	-0.061	0.065	-0.117	0.080	0.155	0.081
		고용주	0.044	0.191	-0.112	0.194	-0.164	0.320	0.225	0.382
		자영자	0.150	0.094	-0.014	0.096	0.031	0.108	-0.034	0.112
		무급가족	0.118	0.097	-0.116	0.062	-0.017	0.107	0.012	0.116
		가구주(ref.해당)	0.135	0.171	-0.083	0.173	0.381**	0.143	-0.433**	0.146
		근로가구원 수	-0.068*	0.028	-0.065*	0.028	0.109**	0.038	0.138***	0.039
		지역(ref.서울)	0.105	0.062	-0.116*	0.062	0.114	0.072	-0.108	0.071
		광역시								
		농촌	0.375***	0.107	-0.336**	0.112	0.150	0.114	-0.190	0.129
		건강상태	0.110**	0.033	0.194**	0.034	0.121**	0.035	0.113**	0.035
		Constant	-2.852***	0.443	-1.875**	0.553	-1.462**	0.450	-1.158**	0.674
		F	21.642***		10.984**		12.408***		11.709**	
		R ²	0.290		0.275		0.199		0.185	

*** p < .001. ** p < .01. * p < .05.

표 6. 연령대별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2SLS)을 통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관계 분석

내생 변수	구분	65~74세				75~84세			
		OLS		2SLS		OLS		2SLS	
		계수	S. E	계수	S. E	계수	S. E	계수	S. E
경제적 자본 변수	내생 사회적 자본	0.317**	0.017	0.333**	0.022	0.011**	0.020	0.026	0.013
	외생 가구원 수	0.728***	0.026	0.658***	0.031	0.733***	0.033	0.646***	0.042
	배우자(ref.유)	-0.094	0.054	0.021	0.066	-0.064	0.056	0.019	0.072
	학력	0.125***	0.004	0.085***	0.005	0.021***	0.005	0.029***	0.007
	고용형태(ref.무직)	0.021**	0.228	0.072*	0.307	-0.260	0.681	0.265	0.127
	상용직								
	임시/일용/자활	-0.089	0.054	0.197	0.065	-0.207	0.093	-0.023	0.004
	자영자	-0.035	0.060	0.033	0.093	-0.061	0.078	0.219	0.144
	무급가족	-0.057	0.063	0.110	0.093	-0.077	0.085	0.132	0.136
	가구주(ref.해당)	-0.572***	0.061	0.609***	0.078	-0.743***	0.068	0.933***	0.093
	근로가구원 수	0.108***	0.024	0.143***	0.028	0.153***	0.031	0.217***	0.037
	지역(ref.서울)	-0.112**	0.041	0.103	0.045	-0.038	0.056	-0.016	0.073
	광역시								
	농촌	-0.166**	0.057	0.129	0.099	-0.016	0.067	-0.121	0.123
	건강상태	0.019	0.019	0.025	0.024	-0.009	0.022	-0.040	0.029
	Constant	1.816***	0.215	1.702**	0.467	2.055***	0.249	0.932	0.434
	F	123.235***		97.042**		118.207***		87.023**	
	R ²	0.717		0.524		0.809		0.812	

내생 변수	구분	65~74세				75~84세			
		OLS		2SLS		OLS		2SLS	
		계수	S. E	계수	S. E	계수	S. E	계수	S. E
사회적 자본 변수	내생 경제적 자본	0.285**	0.083	0.135	0.089	0.069**	0.128	0.163	0.159
	외생 가구원 수	-0.007	0.084	-0.001	0.085	-0.183	0.126	-0.318	0.142
	배우자(ref.유)	-0.133	0.120	0.083	0.134	-0.135*	0.145	0.130*	0.179
	학력	0.028***	0.010	0.037**	0.011	0.020	0.013	0.022	0.017
	고용형태(ref.무직)	-0.333	0.506	0.572	0.619	0.096	1.748	0.426	0.317
	상용직								
	임시/일용/자활	0.061	0.121	-0.123	0.133	-0.101	0.240	-	-
	자영자	0.163	0.133	-0.210	0.188	0.048	0.200	-0.353	0.359
	무급가족	0.322**	0.139	0.492**	0.187	0.032	0.219	0.202	0.338
	가구주(ref.해당)	0.069	0.144	-0.030	0.167	0.204	0.198	-0.229	0.275
	근로가구원 수	-0.024	0.053	-0.060	0.058	0.107	0.081	0.152	0.098
	지역(ref.서울)	-0.070	0.091	0.043	0.092	-0.002	0.143	0.080	0.181
	광역시								
	농촌	0.039	0.128	-0.009	0.201	0.130	0.172	0.182	0.305
	건강상태	0.208***	0.041	0.253***	0.047	0.339**	0.057	0.390**	0.072
	Constant	-1.544**	0.498	-1.854*	0.942	-1.052*	0.691	-0.932	0.069
	F	8.886***		6.649**		3.554***		3.642**	
	R ²	0.240		0.212		0.185		0.183	

*** p < .001. ** p < .01. * p < .05.

즉, 학력이 높을수록, 무직에 비해 상용직일수록, 근로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거주지역이 광역시, 서울에 거주할수록, 건강상태에 만족할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55~64세 연령집단의 경제적 자본에 대한 방정식 모형의 F값은 107.409, 사회적 자본에 대한 방정식 모형의 F값은 11.709로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경제적 자본에 대한 설명변수의 설명력은 35.2%,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변수의 설명력은 18.5%였다. 55~64세 연령집단의 경우도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각 방정식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가구원 수, 배우자 유무, 학력, 고용형태, 가구주여부, 근로 가구원 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OLS 분석결과에서 유의하였던 거주지역과 건강상태는 55~64세 여성의 경제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배우자유무, 학력, 가구주여부, 근로가구원 수,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주일수록, 근로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건강상태에 만족할수록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수준이 높으며, 가구원 수와 고용주여부는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65~74세 연령집단의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2SLS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자본에 대한 방정식 모형의 F값은 97.042, 사회적 자본에 대한 방정식 모형의 F값은 6.649로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설명변수의 설명력은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각각 52.4%, 21.2%였으며, OLS 추정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65~74세 집단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하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 관계이지만,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일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65~74세 연령집단에서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가구원 수, 학력, 고용형태, 가구주여부, 근로가구원 수였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일수록, 가구주일수록, 근로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는 학력과 고용형태, 건강상태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무급가족

종사자일수록, 건강상태에 만족할수록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75~8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본에는 가구원 수, 학력, 가구주여부, 근로가구원 수가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배우자 유무와 건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주일수록, 근로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건강상태에 만족할수록 경제적 자본이 증가하며, 배우자가 있을수록, 건강상태에 만족할수록 사회적 자본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건강상태는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이 관계적 특성에 의해 생성되고 확장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할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건강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제반 사회적 자본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개연성이 크다.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 변수는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다른 설명변수들보다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다른 인구학적 변수들보다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령 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의 증진을 모색하는데 있어 건강한 노화를 이끄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의 일면적인 접근방식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쌍방향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동시에 각 종속변수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변수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한 후 이들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각 연령대별로 검증해 보았다. 분석을 통한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45~54세, 55~64세 연령 집단에서 쌍방향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5~64세의 중년기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동시에 경제적 자본도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 집단의 경우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본수준은 증가하고, 경제적 자본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역시 더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집단의 경우 기존의 논의, 즉 사회적 자본이 가구 및 개인소득, 경제적 복지감 등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자본의 축적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하는 Bourdieu(1986)의 주장 역시 의미 있는 논의이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결과인 사회적 자본이 빈곤,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적인 일련의 경제적 자본 역시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 동안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관계를 일면적 관점이 아닌 양면적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자본이란 경제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 그리고 강화를 통한 또 다른 산물로서 일방적으로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적인 관계로서 경제적 자본 역시 사회적 자본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간의 상호 관계형성이 상대적으로 젊은 중년기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은 고령 집단일수록 개인이 갖는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쌍방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날 경우에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노년기 수준에서 향상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중년기부터 노후를 대비한 자본의 축적이 잘 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즉, 고령기에 급격히 상실할 사회적·경제적 자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년기부터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하여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준비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전기 노년기 집단에 속하는 65~74세 집단의 경우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적인 관계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경제적 자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연령이 더 높은 후기 노년기(75~84세) 집단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쌍방적 관계도, 일방적 관계도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후기 노년기 집단의 경우 배우자 유무와 건강상태가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설명하는 데 주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65~74세 연령집단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립방정식모형에서는 내생변수로 설정된 경제적 자본에는 사회적 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 자본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경제적 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립방정식 모형에서는 65~74세 연령집단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함께 축적되어지기 보다는 사회적 자본만이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보완재의 속성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기 노년기에 속하는 65~74세 연령집단에서는 일면적으로, 그리고 75~84세 후기 노년기 집단에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연령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노년기 여성은 중고령 여성들보다 사회적 자본 수준과 경제적 자본 수준 모두 낮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적자원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노년기 여성의 경우 대부분 사회생활에서 은퇴한지 오래되었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사회관계의 폭과 빈도도 자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수준 모두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일부 여성(65~74세)집단의 경우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소득 보충을 위해서라도 가족적, 사회적 지지체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유지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외생변수로 설정된 변수들의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45~54세 연령집단에서 경제적 자본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의 경우 가구원 수, 학력, 고용형태(무직vs상용직), 가구주, 근로가구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자본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학력, 고용형태(무직vs상용직), 근로가구원 수, 거주지역,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45~54세 연령집단에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수는 학력, 고용형태, 근로가구원 수로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일수록, 근로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역과 건강상태는 사회적 자본에, 가구원 수와 가구주는 경제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55~64세 연령집단에서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배우자 유무, 학력, 가구주여부, 근로가구원 수였으며, 배우자가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주일수록, 근로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건강상태는 사회적 자본에, 가구원 수와 고용형태(무직vs고용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65~74세 연령집단에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모두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력과 고용형태(무직vs무급가족)였으며, 그 밖에 사회적 자본에는 건강상태, 경제적 자본에는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여부, 근로가구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84세 연령집단에서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가구원 수, 학력, 가구주 여부, 근로가구원 수였으며,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배우자 유무와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건강상태의 경우 전 연령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기, 노년기를 불문하고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측면에서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령별로 다르게 축적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 중고령 여성의 생애주기별 과업에 따라 사람, 사회, 제도 등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본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노년기에 이르러 특정 자본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자본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건강은 전 연령대에 걸쳐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건강한 중고령기를 보내기 위한 건강검진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방안으로써의 건강관리 활성화 인식제고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길어진 노년기를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간단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운동과 건강교육을 통해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중·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중년기 여성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관리 및 인생설계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므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경력개발, 재무교육, 은퇴준비, 직업훈련, 창업교육, 귀농·귀촌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하여 중고령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고령여성일수록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많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친지, 친척, 이웃들도 감소하며,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혼자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위기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여성노인의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을 반영하여 가구유형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가정 내 사회자본 뿐만 아니라 보다 확장된 사회적 자본인 이웃과 친구 등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나 사회서비스 참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본의 형성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연령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자본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할 수 있다. 예컨대,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무배우노인 및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좀 더 보편화하며, 말벗이나 자매결연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7차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쌍방향 관계를 연립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양면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를 분석함에 따라 제한된 변수와 측정방식의 적용, 횡단연구라는 점 등과 관련하여 제한점을 가진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정보를 갖는 자료의 구축, 그리고 보다 정교한 모형 및 의미 있는 변수의 구축을 통해서 보다 체계화된 접근을 진행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소랑, 문상호(2012). 가족관계 사회자본이 중·고령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정보**, 46(3), pp.271-298.
- 강철희(2007).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3), pp.5-32.
- 국민연금연구원(2012).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실태**.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김범중, 이흥직(2009). 미국 이주 한인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자본 특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3(1), pp.145-168.
- 김선숙(2012). 사회자본이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2012년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440-452,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훈(2005). 사회 연결망과 공식 경로를 통한 첫취업의 개인적 결과와 사회적 결과. **한국사회학**, 39(1), pp.53-85.
- 김용학(2004).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김왕배, 이경용(2002).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와 조직몰입. **한국사회학**, 36(3), pp.1-23.
- 김지훈, 강욱모, 문수열(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본 인식과 사회적 자본 형성간의 관계분석: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3), pp.25-50.
- 김태준, 최상덕, 장근영, 이기홍(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혜연(2009). **여성의 소득불평등 경향 및 원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민인식, 최필선(2009).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지필미디어.
- 박기남(2002). 관리직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성별 직무 분리. **한국사회학**, 36(6), pp.109-135.
- 박명호(2011). 한국과 EU의 고령화 비교 연구. **EU학 연구**, 16(1), pp.99-126.
- 박희봉, 이희창(2006). 사회자본과 양성평등: 사회자본의 성별 특성과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pp.91-116.

- 박희제(2003). 회귀모형을 통한 범주형 종속변수 분석: 로짓, 프로빗, 순서로짓, 다항 로짓분석. 홍두승, 설동훈(편). STATISTICA를 이용한 사회과학자료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pp.279-304.
- 서지원(2008). 노년기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방향: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pp.31-55.
- 서지원(2013). 중년기 및 노년기 사회자본의 경제적 복지 효과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51(2), pp.207-218.
- 서혜선, 양경숙, 김나영, 김희영, 김미경(2007).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
- 신경아(1999). 조직내 여성노동자의 배제와 통합, 분리에 관한 연구: H사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8, pp.115-138.
- 신창식, 최수일(2010).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 호텔관광연구, 12(3), pp.173-189.
- 우경숙, 서제희, 김계수, 신영전(2012). 노인의 사회자본과 건강위해 행위 및 건강수준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22(4), pp.497-521.
- 이기홍(2005). 한국 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5(3), pp.1-21.
- 이성균(2006). 한국 자영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소득수준. 한국사회학, 40(5), pp.178-206.
- 이인자, 이희선(2010).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교육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201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울: 한국 정책분석평가학회보, pp.133-159.
- 이영성(2004).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수단선택과 지역경제 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 국토계획, 39(4), pp.105-118.
- 이현기(2010).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0, pp.263-290.
- 이흥직(2009).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특성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5(3), pp.25-42.
- 임경수, 소진광. (2004). 지역사회 빈곤퇴치와 사회적 자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1), pp.35-54.
- 임우석(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임진섭(2009). 청소년비행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2SLS(2 Stage 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40(4), pp.101-126.
- 장덕진, 황정미(2003). 여성의 사회적 자본: 기업조직 내 연결망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9, pp.130-160.
- 장유미(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2), pp.261-289.
- 정순돌, 성민현(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pp.249-272.
- 한동희(2014). 여성노인의 사회자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5(3), pp.479-500.
- 허성호, 김중대(2011). 2006년 고령화 패널조사에 나타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 분석. *한국노년학*, 31(2), pp.407-418.
- 홍경준(2001). 빈곤에 대한 또 다른 탐색: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9, pp.165-192.
- Adler, N. J., Izraeli, D. N. (1994). *Competitive frontiers*. Cambridge, MA: Blackwell.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Current Collection and Future Directions*. Discussion Paper.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Australian Framework and Indicators*. Information Paper.
- Bakeera, S. K., Petzold, M., Pariyo, G. W., Galea, S., Tomson, G., Wamala, S. (2010).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the use of health care services in Uganda. *Journal of Public Health and Epidemigology*, 2(8), pp.189-198.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241-258. New York: Greenwood Press.
- Brass, D. J. (1985). Men's and Women's Networks: A Study of Interaction Patterns and Influence in an Organizat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8(2), pp.327-343.

- Bridges, W. P., Wayne, J. V. (1986). Informal Hiring and Income in the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pp.574-582.
- Brisson, D. S. and Usher, C. L. (2005). Bonding social capital in low-income neighborhoods. *Family Relations*, 54(5), pp.644-653.
- Boxman, EAWM, De Graaf PM, & Flap, HD (1991). The Impact of Social and Human Capital on the Income Attainment of Dutch Managers. *Social Networks*, 13, pp.51-73.
- Brynin, M., Schupp, J. (2000). Education, Employment, and Gender Inequality amongst Couples A Comparative Analysis of Britain and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6(4), pp.349-365.
- Burniaux, J. M., Duval, R., Jaumotte, F. (2004). *Coping with ageing: a dynamic approach to quantify the impact of alternative policy options on future labour supply in OECD countries*. No. 371. OECD Publishing.
- Cagney K. A., Wen M. (2007). Social capital and aging-related outcomes. In Kawachi I, Subramanian, SV & Kim D (Eds). *Social Capital and Health*. New York, NY: Springer.
- Campbell, K. E., Lee, B. A. (1991). Name Generators in Surveys of Personal Networks. *Social Networks*, 13. pp.203-221.
- Campbell, K. E., Marsden, P. V. (1986). Measuring Tie Strength. *Social Forces*, 63(2), pp.482-501.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95-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ominguez, S., Watkins, C. (2003). Creating Networks for Survival and Mobility: Social Capital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in-American Low-Income Mothers. *Social Problems*, 50(1), pp.111-135.
- European Social Survey(ESS).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 Ferri, P. J., Deakins, D., Whittam, G. (2009).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n the entrepreneurial context.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3(2), pp.138-151.

- Field, J. (2004). *Social capital*. London & New York: Routledge.
- Grootaert, C., Narayan, D., Jones, V. N., Woolcock, M. (2003).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The World Bank Working Paper No. 18, Washington, DC: World Bank.
- Ibarra, H., Smith-Lovin, L. (1997). New directions in social network research on gender and organizational careers. In C. L. Cooper and S. E. Jackson eds. *Creating tomorrow's organizations*. pp.359-383. London: John Wiley.
- INSEE, France. (2002). *Direction des Statistiques Démographiques et Sociales*.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OECD-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apital Measurement London.
- Kawachi, I., Kennedy, B. P., Lochner, K, Prothrou-Stith, D.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pp.1491-1498.
- LaMascus, A. M., Bernard, M. A., Barry, P., Salerno, J., Weiss, J. (2005). Bridging the workforce gap for our aging society: How to increase and improve knowledge and training. Report of an expert panel.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3(2), pp.343-347.
- Laporte, A., Nauenberg, E., Shen, L(2008). Aging, social capital, and health care utilization in Canada. *Health Policy*, 103(1), pp.38-46.
- Lin, Nan (2000).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29(6), pp.785-795.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Nan., Bonnie, E. (2008). *Social Capital: An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Locher, J. L., Ritchie, C. S., Roth, D. L., Baker, P. S., Bodner, E. V., and Allman, R. M. (2005). Social isolation, wuppor, and capital and nutritional risk in an older sample: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Social Science & Medicine*, 60, pp.747-761.

- Mancini, J. A., Marek, L. I. (2004). Sustaining Community-Based Programs for Familie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Family Relations*, 14, pp.339-347.
- Marsden, Peter V. (1987). Core Discussion Networks of Americ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1). pp.122-131.
- McPherson, J. Miller., Lynn Smith-Lovin. (1982). Women and Weak Ties: Differences by Sex in the Size of Voluntary 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 pp.883-904.
- Mencini, J. A., Marek, L. I. (2004). Sustaining community-based programs for familie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Family Relations*, 53, pp.339-347.
- Menjivar, C. (1997). Immigrant kinship network: Vietnamese, Salvadoreans and Mexica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8, pp.1-24.
- Metz, I., Tharenou, O. (2001). Women's Career Advancement. *Group and Organization Management*, 26(3), pp.312-342.
- Montgomery, J. (1991). Social Networks and Labor-Market Outcomes: Toward and Economic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81(5), pp.1408-1418.
- Moody, H. R. (2005). From successful aging to conscious aging. In M. L Wykle, P. J. Whitehouse, D. L Morris(Eds.). *Successful Aging Through the Life Span: Intergenerational Issues in Health*. pp.55-68.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unch, A., McPherson, M., Smith-Lovin Lynn. (1997). Gender, Children and Social Contact: The Effects of Childrearing for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4), pp.509-520.
- Narayan, D. and L. Pritchett. (1997). *Cents and Sociability*. Household Income and Social Capital In Rural Tanzania. World Bank.
- Nyqvist, F., Gustavsson, J., Gustafsony, N. (2006). Social Capital and Health in the Oldest Old: The Umea 85+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Later Life*, 1(1), pp.91-114.
- Perry, M., Robert L., Nina, W., Howard, W. (2008). Social capital and health care experiences among low-income individual.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2), pp.330-336.

- Popielarz, P. A. (1999). Organizational Constraints on Personal Network Formation.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Organizations*, 16, pp.263-281.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pp.1-24.
- Putnam, R.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pp.65-78.
- Reskin, B. (1993). Sex Segregation in the Workpla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 pp.241-270.
- Renzulli, L. A., Aldrich, H., Moody, J. (2000). Family matters: gender, network, and entrepreneurial outcomes. *Social Forces*, 79, pp.523-546.
- World Bank Social Capital Website. <http://www.worldbank.org/poverty/scapital/index.htm>.

최민정은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인천대학교, 경기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 불평등, 연금, 노인복지이며, 현재 베이비부머의 소득 및 자산, 여성빈곤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mj-1677@hanmail.net)

An Exploration on Middle Aged Women'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A Comparison of Four Different Age Groups

Choi, Min Jeong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middle-aged Korean women. This study tried to compare the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four age groups: aged 45 to 54, aged 55 to 64, aged 65 to 74, aged 75 to 84.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by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o analyze the 2SLS (Two Stage Least Square method) assumption method of simultaneous equations was used. By applying this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study found,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verified fact that social capital is the predicting factor for young-old women's economic capital, that the opposite relationship also can be practically verified. That i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s not in an unilateral relationship that social capital has effect on economic capital but is in 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some part of economic capital increase social capital. It was found 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predicted Korean young-old women's. In also confirmed the necessary of involvement strateg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n Korea.

Keywords: Middle Aged Women, Social Capital, Economic Capital, Simultaneous Equation Model, 2SLS, Bilateral Relationship